초록저고리와 치마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선호도 연구

The Study in the Preference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with the tone Variation of Green Jacket and Skirt Color

강경자* · 김선미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Kyung-Ja Kang* · Sun-Mi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compare the preference of coloration of traditional Korean dress according to tone variation of green jacket by Korean and American women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Korean students preferred skirt of vivid red color and light green jacket, but American students did not like it. Korean students did not like the skirt and jacket of same color, but American students preferred it.

Both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preferred skirt and jacket of different tone. Korean students liked skirt of dull blue and jacket of light dull green, skirt of dark blue and jacket of vivid, dull green.

American students liked skirt of vivid violet and jacket of vivid dull, dark green. They also liked skirt of light yellow and jacket of light green, light skirt of blue, violet and jacket of light, dull, dark green, skirt of dark blue and vivid, light, dull gueen, skirt of dark violet and jacket of dull, dark green.

Key Words : green jacket, korean dress, coloration, preference, tone

Ⅰ. 서론

모든 인류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색채이다. 그러나 연령, 성별 더 나아가 인종에 따라 민족, 기후등 문화적 환경에 따라 색을 느끼는 감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역으로 색채에 대한 반응차이를 통해서 그 사회나 문화의 특성을 파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색채를 통해 만인이 공감하는 미에 대한 법칙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Eysenk(1941)는 세계각지에서 행해진 조사결과를 재분석하여 색채분석에는 인종, 성별을 초월한 공통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감정구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 색에 대해 좋아하거나 -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자체가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색상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배색에 대한 선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초록색하나만 보면 좋아하지만 어떤 색과 배색되느냐에 따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보면 배색이 디자인의 초점이 되는 한복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우리고유의 전통감각을 세계가 공감하는 감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복의 다양한 배색에 대한 동·서양의 선호경향을 밝히는 교차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Birren, 1955; 문선희 1980; 이선재, 1987; 정삼호, 1989; 최승희, 1990; 김영인, 문영애, 2000)에서는 색채선호 또는 심리적특성과 관련시켜 연구하였고, 한복배색에서 배색유형별로 조화감을 밝힌 연구(강경자, 2001, 2002, 2004, 2005)들이 있으나

* Corresponding author: Kyung-Ja Kang
Tel: 055) 751-5982, Fax: 055) 753-9030
E-mail: kjkang@gsnu.ac.kr

한복배색에 대한 선호정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고유의 저고리색 중 하나인 초록저고리와 배색되는 치마의 명도에 변화를 준 다수의 배색을 한·미여대생에게 보여주고 자신이 느끼는 선호정도를 판단케 하여 문화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 고유의 전통 배색으로 알려져 있는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배색을 중심으로 초록저고리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그리고 무채색등 치마색을 다양하게 바꾸어 조합하여 치마와 저고리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이들 배색에 대한 선호 정도에서 개인이나 문화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므로서 한·미여대생의 한복배색에 대한 감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우리의 전통 저고리색인 초록색을 중심으로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어떤색과 어떤톤의 치마가 조합될 때 선호되는지를 밝혀 국내는 물론이고 인종과 문화를 넘어 우리의 전통적인 한복의 배색을 선호하고, 평가하는 외국인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복배색에서 초록저고리와 치마색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정도를 밝힌다.

2) 한복배색에서 초록저고리와 치마색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정도에서 문화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록의 특성

색(color)은 색상·명도·채도의 3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의 상징성 및 색에 관련된 인상에 의해 나타나는 색의 성격은 문화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나타낸다. 색의 조화방법은 크게 유사색 조화(analogous color harmony)와 보색조화(complementary color harmony)의 두가지로 나주어진다. 유사색 조화는 색환(color wheel)에서 인접한 색상의 조화로 색상차이가 적어 통일감과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보색 조화는 색상차이가 커서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 두 가지 색중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상이 의복의 전체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한다. 색상은 온도감으로 난색과 한색으로 색상환에서는 노랑과 보라를 축으로 하여 나누며 일반적으로 빨강, 주황, 노랑은 난색으로 초록, 파랑, 남색은 한색으로 구분한다. 특히 초록색은 우리 전통 한복에서 저고리 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초록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색으로 희망, 회복, 평화를 나타내며 기품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다. 초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솔직하고 사회의식이 있으며 도덕심이 풍부해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양에서는 초록이 불운, 악마적이고 미숙함의 이미지로 에메랄드를 선물하거나 파스타치오색의 원피스를 입거나 올리브색으로 벽을 바르거나 시금치색 자동차를 타는 것은 '초록이 불행을 가져온다' 라는 미신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유럽인들이 초록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게 된 것은 침략으로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이슬람 문명의 상징색으로 알려져 초록에 대한 이미지는 민족간에 차이를 보였다. Arnheim(1981)은 색채는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형성되는 상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마다 색채에 대한 연상이 다를 수 있지만 대중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연상되어지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그 색채의 이미지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Kobayashi(1981)는 색이미지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척도개발 연구에서 색의 삼속성을 단순화하여 색과 톤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한 이미지 측정에서 색이미지는 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와 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였다. IRI(1997)는 한국인의 색채감성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한국인의 색채 감성은 톤을 기준으로 크게 은은한, 밝은, 선명한, 어두운 이미지로 나누어져 일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Charlene Line(1993)은 톤의 경우 일반색 선호도와 의복색 선호도를 분석 한 결과, 일반색 선호도가 높은 톤은 페일톤 이었으며, 다음이 비비드톤, 덜톤, 다크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덜톤과 다크톤은 의복색 선호도가 일반색 선호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덜톤, 다크톤, 페일톤의 의복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배색 선호

배색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색만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배색시에는 단색보다는 두색이 조합되어 어울릴 때 색채이미지의 내포적 힘이 강해지며, 표현범위가 넓어져 두색 이상의 조합에서 주는 인상은 단색에서 주는 인상보다 검정가치가 크게된다. 남수진(1999)은 사람이 대상을 볼 때 70~80%는 색체에 의해 인식하고, 대상에 대한 선호 비선호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색채선호도는 사람들의 습관, 시대유행등 사회적, 관습적인 요

인과 선호대상과 관련을 가진다. 색채선호도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를 고찰해 보면 주로 인종, 연령 등 개인적 특질과 관련되어 선호도를 규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Birren은 (1955) 색채의 배색효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색채의 단조배색을 선호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색채의 대비배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모든 인종에 있어서 어린아이 시절의 색선호 순서는 빨강, 파랑, 초록, 자주, 주황, 노랑이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파랑, 빨강, 초록, 보라, 주황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최승희(1990)의 연구에서 기혼여성은 의복색으로 난색과 보색배색을 더 선호한 반면 미혼여성은 한색과 동색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여성의 배색선호도를 연구한 William등(1980)은 유사배색, 단색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 Radeloff가(1991) 보고한 미국의 의류, 직물, 디자인전공 여대생들의 의복색채 선호결과를 보면, 여름색을 가장 좋아하고, 가을색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였다. 김영인(1999)등은 한국 성인남녀의 의복선호색에서 초록은 높은 색조보다 낮으며 밝고 연한 초록을 선호하고 남녀 모두 가을/겨울보다는 봄/여름에 초록색 의복을 선호하였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초록색 의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삼호(1990)는 성인여성의 직물표본에 의한 색채선호와 의복 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 선호간의 비교연구를 한 결과 투피스의 경우 20대는 카나리아색, 연한 하늘색, 30,40대는 초록, 50대는 하늘색, 밝은 보라색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김소영(1989) 최영미(1989)은 부산과 서울 각각의 지역에서 조사한 결과 한복선택과 구매행동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한복의 색상이라고 하였다. 금기숙(1990)은 조선복식의 색조화 방법상의 특징은 강렬한 보색대비보다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대비가 대부분이며, 명도가 낮은색을 주로 치마에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강혜원 등(1991)은 한복의 배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쳐, 보색조화(연두/꽃분홍)가 유사색 조화(연두/초록)보다 현대적인 것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이은영(1992)은 복색에서 보색조화는 두가지 색상의 면적이 뚜렷이 차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여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상이 의복전체의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하는 주된 색채가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한복의 빨강치마와 초록저고리의 조화라고 하였으며 김진아(1994)도 폐백때와 시집갈 때 또는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으로 입는 한복배색은 다홍치마에 연두저고리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Walton과 Morison도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호하는 배색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의 배색을 포함시켰고 Guilford (1940)는 사람들이 서로 반대되는 색 즉 보색들의 배합을 좋아한다고 하였다(김화중, 1991). 박옥련(1998)은 의상선호색은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민속의상에서 보여지는 색의 경향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고 일본 여성과 한국 여성의 의상선호색에 대해서 색채차트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검정색이나 흰색에 이어 전통색인 우리 색이나 옥색, 초록색 등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여성은 네이비블루나 흰색, 검정색, 빨강색 등 현대적인 색을 선호하고, 톤에서는 한국 여성이 강한 톤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경자(2001)는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복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 빨강치마에 초록저고리의 배색을 양국여대생 모두 조화된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여 이질성이 높은 배색도 조화감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배색의 톤은 비비드>덜> 라이트>다크 순으로 조화된다고 하여 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강경자, 최수경(2005)는 한·미여대생에게 빨강저고리 톤변화에 따른 치마배색의 선호도 연구에서 한국여대생은 비비드와 라이트, 라이트와 비비드의 톤조합을 선호하고 동일한 톤조합은 선호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비비드와 비비드, 라이트와 라이트 등 상하동색의 동일한 배색이나 덜과 다크, 다크와 덜 같이 유사톤의 배색을 선호하여 톤조합에 따라 문화간에 차이를 보여 어떤 색과 톤으로 배색되는냐에 따라 선호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명도와 채도는 색채선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Rodeloff,1991)

복색에서 선호하는 색상은 연령, 성별, 성격, 개인의 특성 및 문화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한복의 배색에서 명도변화 즉 치마, 저고리의 색상과 톤변화에 따른 선호정도에서도 문화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복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선호도를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문항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1) 자극물

자극물은 치마·저고리의 전통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강경자, 최수경, 2005)에서 사용한 자극물과 동일하다.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으로 저

고리의 깃과 고름색은 치마색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 색은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자수나 문양, 염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가 갖는 속성인 온도감을 기준으로 빨강, 주황, 노랑을 난색으로, 초록, 파랑, 보라를 한색으로 구분한 분류기준(이은영, 1992)에 근거하여 치마색을 유채색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색상으로 선정하였고 여기에 무채색을 포함시켰다, 저고리 색상은 초록으로 하고, 각 색상의 톤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자극물의 제작은 한복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 (4D-BOX 6800 Zun system)에 scanning하여 입력한 다음 선정된 색상이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다. 전체 자극물은 무채색을 포함한 28가지(7색, 4톤) 치마색과 12가지(3색, 4톤) 저고리색을 조합하여 만든 총 336개의 실험배색으로 선정, 조사되었다. 이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

sample		먼셀기호
빨강 (red)	vivid	5R 4/14
	light	5R 8/6
	dull	5R 5/6
	dark	5R 2/6
주황 (orange)	vivid	5YR 6/14
	light	5YR 9/2
	dull	5YR 5/4
	dark	5YR 2/4
노랑 (yellow)	vivid	5Y 8.5/14
	light	5Y 8.5/6
	dull	5Y 7/6
	dark	5Y 3/4
초록 (green)	vivid	5G 5/10
	light	5G 8/4
	dull	5G 6/4
	dark	5G 2/4
파랑 (blue)	vivid	5B 5/10
	light	5B 8/4
	dull	5B 5/4
	dark	5B 2/4
보라 (purple)	vivid	5B 4/12
	light	5B 8/4
	dull	5B 5/4
	dark	5B 2/4
흰색(white)		N9
밝은 회색(light gray)		N7
어두운 회색(dark gray)		N4
검정(black)		N2

중 본 연구에서는 저고리색으로 사용한 빨강, 노랑, 초록 3가지 색상(3색×4톤)중에서 초록저고리(1색×4톤)만을 선정하고, 치마색으로는 무채색(N9, N7, N4, N2)을 포함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를 사용하여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치마, 저고리의 색이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조작한 후 저고리색의 톤과 치마색의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하였다. 즉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무채색을 포함한 4가지 톤의 7가지 치마색이 조합된 총 112개(1색×4톤×7색×4톤)의 자극물만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2) 자극물의 평가

한복배색의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한국여대생의 경우 피험자내 설계로 한 피험자가 모든 자극물(336개)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피험자가 동시에 모든 자극물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한번에 16-17장의 자극물을 제시하고 20회에 걸쳐 시간차이를 두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미국여대생의 경우는 모든 자극물(336개)을 20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16-17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피험자 수는 실험조합별로 10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피험자는 1개의 무선조합에 배치되어 16-17장의 자극물을 평가하였으므로 피험자내 설계와 피험자간 설계가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이 때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 16-17장은 색상과 톤에 의한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피험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따라서 평가된 336개의 자극물 중 112개의 자극물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3) 선호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복배색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좋아하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왼쪽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주고 오른쪽 극단에 배치된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부여하여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 척도의 신뢰도를 밝히기 위해 예비조사시와 동일한 자극물을 평가하게 하였다. 검사-재검사 방법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745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평가자는 한국 여대생과 미국 여대생으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 경상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중인 83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 초에서 12월 초 사이에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생활과학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Human Ecology)에서 consumer science와 environment textile and design을 전공하는 2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1998년 11월에서 1999년1월 사이에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인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t-검증, 분산분석과 사후 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 검증)을 하였다.

Ⅳ. 연구 결과

한복 배색에서 초록저고리의 4가지 톤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치마색을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조작하고, 여기에 4가지 무채색치마를 포함하여 치마, 저고리의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한 후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그림 1], [그림 2]에 나타내었다.

1.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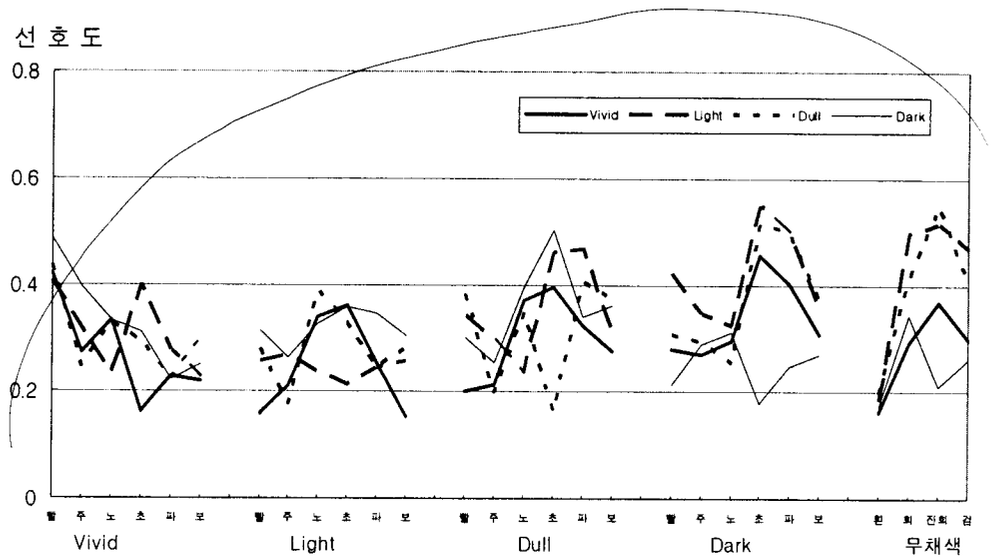
한복배색에서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4가지 톤의 6가지 치마색, 4가지 무채색치마와 조합하여 한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4가지톤의 초록저고리와 비비드톤의 6가지 치마를 조

〈표 2〉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저고리톤 / 치마톤·색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p-값	
		한국 (M)	미국 (M)	p-값	한국 (M)	미국 (M)	p-값	한국 (M)	미국 (M)	p-값	한국 (M)	미국 (M)	p-값	한국 (M)	미국 (M)
비비드	빨강	.421A	.417b	.962	.404A	.183b	.023*	.437A	.367b	.486	.485A	.667aA	.076	.311	.003**
	주황	.273bBc	.271a	.500	.315abB	.333a	.843	.246bBC	.217a	.712	.395aB	.000bC	.000***	.006*	.021*
	노랑	.331aB	.283	.598	.231bC	.117B	.164	.329aB	.283	.609	.331aBC	.317B	.870	.024*	.419
	초록	.163cD	.350	.008**	.400aA	.367B	.742	.292bBC	.367	.390	.312bBCD	.333B	.802	.000***	.992
	파랑	.230CD	.233	.968	.275BC	.383	.213	.222c	.433	.008**	.224D	.250B	.755	.417	.409
	보라	.221CD	.433	.009**	.226c	.300	.340	.298BC	.400	.259	.252CD	.583A	.000***	.162	.157
	p-값	.000***	.282		.000***	.229		.000***	.669		.000***	.000***			
라이트	빨강	.159bC	.117	.564	.258a	.233	.784	.279aB	.300	.823	.313a	.250CD	.488	.001***	.372
	주황	.209abBC	.167	.5267	.271a	.333	.496	.175bC	.300	.081	.264a	.200CD	.457	.026*	.279
	노랑	.339aA	.183b	.011*	.238b	.483a	.008**	.390aA	.233b	.082	.328a	.150bD	.059	.004**	.021*
	초록	.361aA	.167	.041*	.213b	.500	.001***	.328aAB	.433	.229	.359a	.367ABC	.942	.001***	.100
	파랑	.253bB	.317	.400	.246b	.683	.000***	.246bBC	.483	.061	.346a	.567A	.035*	.012*	.133
	보라	.153bC	.350	.045*	.259a	.450	.045*	.283aB	.533	.013*	.304a	.467AB	.098	.001***	.674
	p-값	.000***	.160		.750	.064		.000***	.159		.310	.013*			
덜	빨강	.202cC	.183B	.813	.343abB	.567A	.017*	.384aA	.383ABC	.997	.302bBC	.450AB	.107	.000***	.060
	주황	.213bC	.133B	.238	.298aBC	.200B	.251	.197bB	.350BC	.029*	.254abC	.233B	.801	.014*	.332
	노랑	.371aA	.133B	.006**	.234bC	.283AB	.518	.349aA	.250C	.231	.394aB	.283B	.249	.000***	.446
	초록	.394bA	.467A	.446	.463abC	.467AB	.967	.165cB	.567AB	.003**	.502aA	.650A	.152	.000***	.390
	파랑	.322bAB	.367AB	.625	.467aA	.517A	.615	.405abA	.583AB	.067	.339bBC	.633A	.003**	.003**	.260
	보라	.276B	.283bAB	.931	.307BC	.433abAB	.149	.372A	.650aA	.006**	.361B	.600aA	.019*	.081	.019*
	p-값	.000***	.032*		.000***	.050*		.000***	.024*		.000***	.001**			
다크	빨강	.280bcB	.617a	.000***	.419aBC	.233a	.052	.308bBC	.267bBC	.659	.212cCD	.117bC	.042*	.000***	.001***
	주황	.271B	.283	.894	.347CD	.233	.200	.294BC	.367BC	.424	.289AB	.350ABC	.518	.244	.775
	노랑	.294B	.350	.467	.322D	.150	.006**	.255C	.183C	.371	.310A	.333BC	.795	.347	.261
	초록	.456bA	.367	.354	.550aA	.383	.103	.514aAb	.550AB	.715	.178cC	.667A	.000***	.000***	.121
	파랑	.401bA	.467	.494	.500aAB	.483	.867	.498aA	.717A	.032*	.247cABC	.350ABC	.441	.000**	.098
	보라	.309B	.317	.929	.356CD	.250	.247	.369B	.500AB	.176	.269AB	.583AB	.001***	.061	.063
	p-값	.000***	.124		.000***	.062		.000***	.0045**		.007**	.006**			
무채색	흰색	.165B	.333bc	.018*	.185B	.700b	.001***	.198C	.533ab	.000***	.173C	.150cB	.762	.781	.001***
	밝은회색	.293cA	.383	.283	.494aA	.617	.203	.410bB	.600	.049*	.343bAc	.600A	.013*	.000***	.327
	어두운회색	.368bA	.367	.986	.514aA	.583	.482	.548aA	.700	.109	.211cBC	.500A	.001***	.000***	.070
	검정	.298bA	.450	.072	.466aA	.417	.623	.405aB	.517	.283	.261bB	.417AB	.096	.000***	.890
	p-값	.000***	.8436		.000***	.161		.000***	.540		.000***	.025*			

*p<.05 **p<.01 ***p<.001 L.S.D검정결과 P<.05수준에서 a>b>c로 표시 비선호 < .4 < 선호



〔그림 1〕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 선호도

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 정도를 <표 2>와 [그림 1]에서 보면 한국여대생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 모두 비비드의 6가지 치마색과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 초록저고리의 경우 비비드 빨강치마와의 배색 즉 대비배색은 선호도가 높게 평가된 반면 비비드톤 초록저고리와 초록치마의 배색 즉 동색배색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동색배색보다 대비배색일 때 그 선호 정도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라이트 초록저고리의 경우 비비드 빨강치마와의 배색을 선호하여 다홍치마에 연두저고리를 많이 입는다는 김진아(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초록치마와의 배색에서도 선호도가 높게 평가 되었다. 즉 톤이 같은 비비드 초록치마·저고리는 매우 선호되지 않지만 상·하 톤차이가 나는 즉 톤온톤 배색이 되는 비비드 초록치마에 라이트톤 초록저고리는 선호되는 차이를 보였다. 덜, 다크톤의 초록저고리는 난색계통의 치마인 빨강치마와 주황치마와 배색될 때 선호정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에 한색계통의 파랑치마, 보라치마와의 배색은 선호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초록저고리의 경우 톤에 상관없이 빨강치마와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고 파랑치마나 보라치마와의 배색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서로 반대되는 색 즉 보색들의 배합을 좋아한다고 밝힌 Guilford의 견해(김화중, 1991)를 지지해준다. 특히 한국여대생들이 이들 배색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전통혼례 문화의 신부 한복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초록저고리에 빨강치마의 대비배색에 익숙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4가지톤의 초록저고리와 라이트톤의 6가지 치마를 조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 정도를 <표 2>와 [그림 1]에서 보면 한국여대생은 비비드나 덜톤의 초록저고리와 6가지 라이트톤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라이트 빨강, 보라치마와의 배색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반면에 라이트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빨강치마의 배색은 매우 선호되는 것과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비비드 빨강치마와 라이트 초록저고리, 반대로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라이트 빨강치마는 동일한 조합임에도 치마, 저고리의 어느 면적에 어떤 톤과 색상이 위치하느냐에 따라 선호 정도에서 차이를 보여 한복의 배색에서 하의보다 상의를 밝게 입는 한국의 전통적인 배색방법이 한국여대생의 선호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6가지 치마 중 라이트 초록, 노랑치마와의 배색을 다소 선호하여 동색이나 유사배색보다 파랑, 보라치마등의 한색과의 배색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톤의 초록저고리를 라이트톤의 6가지 치마색과 배색할 경우 대체로 노랑치마와 배색을 가장 선호하고 주황치마와 배색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톤의 초록저고리와 덜톤의 6가지 치마를 조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 정도를 <표 2>와 [그림 1]에서 보면 한국여대생은 4가지 저고리톤 모두 덜톤의 6가지 치마색과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덜톤의 초록치마와 다크>라이트>비비드 초록저고리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덜톤 초록치마와 덜톤 초록저고리의 배색은 매우 선호되지

않아 동일톤인 덜톤의 상·하 동색배색은 조화되지 않는다고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강경자,2001)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 또한 덜톤 초록치마와 라이트, 덜 파랑치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색인 한색과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4가지톤의 초록저고리와 다크톤의 6가지 치마를 조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와 [그림 1]에서 보면 한국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초록저고리 모두가 6가지 다크톤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 라이트, 덜톤의 초록저고리는 다크톤의 초록치마나 파랑치마와 배색될 때 매우 선호 되었고, 노랑이나 주황치마와의 배색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크 초록저고리는 6가지 치마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선호된 배색은 나타나지 않았다. 초록치마가 다크톤인 경우 라이트>덜>비비드 초록저고리와 배색 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다크톤으로 된 치마·저고리의 배색은 가장 선호하지 않아 한국여대생은 동일 톤의 상·하 배색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치마톤이 어두운 다크톤일 때는 저고리색이 치마색 보다 밝거나, 선명한 톤일 때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가지톤의 초록저고리와 무채색의 4가지 치마를 조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과 [그림 1]에서 보면 한국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의 초록저고리와 4가지 무채색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라이트, 덜톤의 초록저고리는 각기 밝은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치마와 배색될 때 선호되고 비비드, 다크톤의 초록저고리는 각기 4가지 무채색치마와의 배색될 때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두운 회색 치마는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도에서 크게 차이를 나타내어 라이트, 덜톤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은 가장 선호하는 반면 다크톤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흰색 치마와 초록저고리의 배색은 저고리의 톤에 상관없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서 흰색치마는 상주복으로 입혀졌다는 인식과 한국여대생이 밝고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비비드나 라이트톤의 저고리와 다소 무겁고 어두운 저명도의 무채색치마가 잘 조화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강경자, 2004)와 비교해 볼 때 상반된 것으로 즉 상·하의 면적에서 면적이 넓은 치마에 고명도인 흰색이 조합됨으로서 한국의 전통배색과는 차이를 보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여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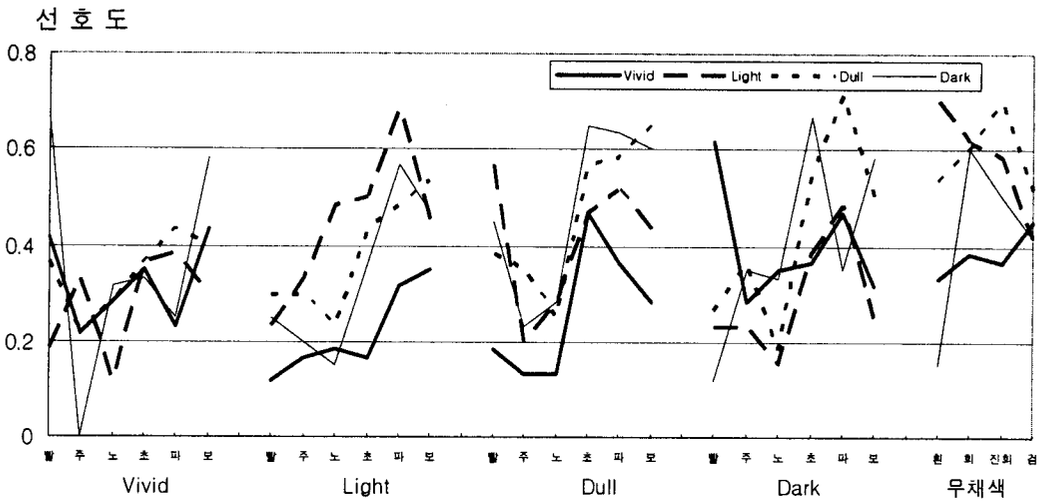
2.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도

한복배색에서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4가지 톤의 6가지 치마색, 4가지 무채색치마의 조합하여 미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4가지 초록저고리와 비비드톤의 6가지 치마를 조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와 [그림 2]에서 보면 미국여대생은 4가지톤 중 다크 저고리와 6가지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다크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빨강, 보라치마와의 배색은 선호정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초록, 파랑치마와의 배색은 선호되지 않고 특히 주황치마와의 배색은 선호정도가 매우 낮았다. 비비드, 라이트, 덜톤 초록저고리의 경우 비비드톤 6가지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빨강, 보라치마와의 배색은 선호된 반면 파랑, 주황, 노랑치마와의 배색은 선호되지 않았다. 그러나 라이트 톤의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빨강치마, 노랑치마의 배색은 선호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덜톤 초록저고리와 파랑, 보라 비비드 치마는 선호되는 배색으로 평가되었다.

4가지 톤의 저고리와 라이트톤의 6가지 치마를 조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와 [그림 2]에서 보면 미국여대생은 4가지톤 중 다크 저고리와 6가지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여대생은 라이트 초록저고리와 파랑, 초록, 노랑, 보라치마, 덜톤 초록저고리와 보라, 파랑, 초록치마, 다크 초록저고리와 파랑, 보라치마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저고리의 톤변화에 상관없이 초록저고리와 초록치마, 파랑치마, 보라치마와의 배색은 선호하고 빨강치마, 주황치마, 노랑치마의 배색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이트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빨강치마의 배색,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라이트 빨강치마의 배색은 초록과 빨강이라는 동일한 색상의 배색이지만 톤이 상반된 배색으로 이 두 배색은 모두 선호하지 않았다. 대체로 톤에 상관없이 상·하 동일한 톤의 배색이나 톤온톤 초록치마·저고리의 배색과 유사색의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덜톤의 6가지 치마를 조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와 [그림 2]에서 보면 미국여대생은 4가지톤 중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초록저고리와 6가지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덜 초록치마의 배색을 선호하고 주황, 노랑, 빨강치마와의 배색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었



〔그림 2〕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 선호도

다. 저고리의 톤변화에 상관없이 라이트톤, 덜톤, 다크톤 초록저고리와 덜톤 초록치마와의 배색을 선호하여 초록 톤온톤 및 동일톤의 배색을 선호하였으며 또한 초록치마와 유사색인 파랑치마나 보라치마의 배색도 선호하였다. 그리고 라이트, 다크 초록저고리와 보색인 덜톤의 빨강치마를 선호하고 노랑치마나 주황치마와의 배색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다크톤의 6가지 치마를 조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미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표 2>와 [그림 2]에서 보면 미국여대생은 초록저고리의 4가지톤 중 덜·다크 저고리와 6가지 치마색과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미국여대생은 비비드나 라이트톤 초록저고리와 다크톤 파랑의 배색, 덜톤의 초록저고리와 다크톤 파랑, 초록, 보라치마의 배색 그리고 다크톤 초록저고리와 다크톤 초록, 보라치마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특히 덜톤의 초록저고리와 다크톤의 파랑치마의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가장 선호하는 배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와 다크톤 노랑치마, 다크 초록저고리와 다크 빨강치마의 배색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무채색의 4가지 치마색를 조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선호정도를 <표 2> 와 [그림 2]에서 보면 미국여대생은 초록저고리의 4가지톤 중 다크 저고리와 4가지 치마와의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미국여대생은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검정치마, 라이트, 덜톤 초록저고리와 흰색, 밝은회색, 어두운회색, 검정치마와의 배색을 모두 선호하였다. 특히 라이트 초록저고리와 흰색치마, 덜톤 초록저고리와 어두운 회색의 치마를 선호하였고 다크톤 초록저고리와 흰색치마와의 배색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흰색치마와 초록저고리의 배색은 저고리의 톤이 너무 어둡거나 선명하면 선호정도가 낮아 저고리 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3. 치마 색상별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 선호도 비교

한복배색에서 치마톤을 통제한 상태에서 치마 색상별로 저고리톤을 변화시켜 조합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선호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났다.

1) 비비드톤의 치마와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의 톤을 비비드로 통제시키고 초록저고리의 톤을 변화시킨 후 6가지 치마색상별로 선호정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톤의 빨강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미국여대생만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여대생은 비비드톤 빨강치마와 다크>덜>비비드>라이트 초록저고리 배색순으로, 미국여대생은 다크>비비드>덜>라이트 초록저고리와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두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인 배색은 라이트 초록저고리와 비비드톤 빨강치마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은 이들 배

색을 선호하였으나 미국여대생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 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여대생은 저고리 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초록저고리에 빨강치마의 배색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여성들이 선호하는 배색으로 빨강색과 초록색의 배색을 포함시킨 Walton과 Morison의 견해(김화중, 1991)를 지지해준다.

비비드톤의 주황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며 한국여대생은 미국여대생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선호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화 간의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비비드 주황치마와 다크톤 초록저고리의 배색으로 이들 배색을 한국여대생은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미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드톤의 노랑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 은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미국여대생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선호경향을 보였다. 미국여대생은 톤별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노랑치마의 배색을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드톤 초록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라이트>다크>덜>비비드 저고리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나 선호 정도가 낮았다. 두 문화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비비드톤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초록치마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배색으로 평가하여 미국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비비드톤 파랑이나 보라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양국여대생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국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덜톤 초록저고리와 비비드톤 파랑치마,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보라치마, 다크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보라치마의 배색에서 한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2) 라이트톤의 치마와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의 톤을 라이트로 통제시키고 초록저고리의 톤을 변화시킨 후 6가지 치마색상별로 선호정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먼저 라이트톤의 빨강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이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선호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선호 정도가 매우 낮았고 두 문화 간의 차이를 보인 배색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이트톤의 주황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치마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 모두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선호 정도는 매우 낮았다.

라이트톤의 노랑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양국여대생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미국여대생은 라이트>덜>비비드>다크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선호하였다. 두 문화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으로 라이트 노랑치마와 비비드 초록저고리의 배색은 한국여대생이, 라이트 노랑치마와 라이트 초록저고리의 배색은 미국여대생이 보다 선호하는 차이를 보여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라이트톤의 초록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라이트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초록치마의 배색은 미국여대생보다 한국여대생이 선호하였고 저고리와 동일 톤인 라이트 초록치마와 라이트 초록저고리의 배색을 미국여대생은 매우 선호하는데 반해 한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아 양국여대생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한복의 경우 동색배색 보다 상·하 이색배색을 조화된다고 지각하는 한국여대생의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이트톤의 파랑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선호정도는 낮았다. 미국여대생은 라이트 파랑치마와 라이트>다크>덜>비비드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한국여대생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문화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한국여대생은 다크 초록저고리와 라이트 파랑치마, 특히 동일톤인 라이트 초록저고리에 라이트 파랑치마의 배색을 매우 선호하지 않는 반면 미국여대생은 매우 선호하는 배색으로 나타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라이트톤의 보라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크>덜>라이트>비비드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그 선호정도는 낮았다. 두 문화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라이트 보라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톤 저고리와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은 3가지 배색 모두 선호하지 않는 반면 미국여대생은 한국여대생 보다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3) 덜톤의 치마와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의 톤을 덜로 통제시키고 초록저고리의 톤을 변화시킨 후 6가지 치마색상별로 선호정도를<표 2>에서 살

펴보면 먼저 덜톤의 빨강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덜>라이트>다크>비비드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선호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덜톤의 빨강치마와 라이트>다크>덜>비비드톤 초록저고리의 배색순으로 선호하고 특히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을 미국여대생은 선호하는 반면 한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에 차이를 보였다.

덜톤의 주황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양국여대생 모두 선호 정도는 매우 낮았다. 두 문화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덜 초록저고리와 동일 톤인 덜톤의 주황치마와의 배색을 한국여대생은 미국여대생 보다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톤의 노랑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크>덜>비비드>라이트 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양국여대생 모두 선호 정도는 낮았다. 미국여대생은 특히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덜톤 노랑치마와의 배색을 한국여대생 보다 더 선호하지 않아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덜톤의 초록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덜톤 초록치마와 저고리톤이 비비드, 라이트, 다크 초록일 때 양국여대생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덜톤 초록치마와 덜톤 초록저고리의 배색은 문화 간에 차이를 보여 미국여대생은 선호하는 것으로, 한국여대생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덜톤의 파랑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라이트>덜>다크>비비드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덜 파랑치마와 다크 초록저고리의 배색을 한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지만 미국여대생은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에 차이를 보였다.

덜톤의 보라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미국여대생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양국여대생은 모두 덜>다크>라이트>비비드 배색순으로 선호하여 문화에 관계없이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양국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덜 보라치마와 덜톤 초록저고리, 덜 보라치마와 다크 초록저고리의 배색으로 이들 배색을 미국여대생은 한국여대생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4) 다크톤의 치마와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의 톤을 다크로 통제시키고 초록저고리의 톤을 변화시킨 후 6가지 치마색상별로 선호정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먼저 다크톤의 빨강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양국여대생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여대생은 라이트>덜>비비드>다크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미국여대생은 비비드>덜>라이트>다크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순으로 나타나 한국여대생은 다크 빨강치마에 밝은 라이트 초록저고리를 미국여대생은 다크 빨강치마에 선명한 비비드 초록저고리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여 두 문화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여대생은 짙은 치마에 밝은 저고리를 입는 우리의 배색에 대한 관습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동일한 색이나 톤 즉 동색배색을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 하지만 다크 빨강치마와 다크 초록저고리는 조화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선행연구(강경자, 2001)결과와 일치하여 대체로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배색은 선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크톤 주황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양국여대생 모두 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한국여대생은 라이트>다크>덜>비비드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미국여대생은 덜>다크>비비드>라이트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으로 선호하였으며 양국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톤의 노랑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양국여대생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선호정도는 매우 낮았다. 두 문화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다크 노랑치마와 라이트 초록저고리의 배색으로 미국여대생은 한국여대생보다 매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톤의 초록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라이트>덜>비비드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미국여대생은 다크>덜 >라이트> 비비드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선호하였다. 양국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다크 초록치마와 다크 초록저고리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데 반해 미국여대생은 매우 선호하는 배색으로 평가하였고 다크 초록치마와 덜 초록저고리의 배색은 양국여대생 모두 선호하고 배색으로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다크톤의 파랑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라이트>덜>비비드>다크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선호하였다. 다크 파랑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을 양국여대생 모두 선호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다크 파랑치마와 덜 초록저고리의 배색은 한국여대생 보다 미국여대생이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톤의 보라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양국여대생 모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양국 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다크 보라치마와 다크 초록저고리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는 반면 미국여대생은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무채색의 치마와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비교

치마색의 톤을 무채색으로 통제시키고 초록저고리의 톤을 변화시킨 후 4가지 치마색상별로 선호정도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먼저 밝은 톤인 흰색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미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라이트>덜>비비드>다크의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선호하였다. 이는 미국여대생이 흰색치마와 라이트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을 가장 조화된다고 밝힌 선행연구(강경자,2005)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양국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흰색치마와 비비드 초록저고리, 흰색치마와 라이트 초록저고리, 흰색치마와 덜 초록저고리의 배색으로, 이들 배색들을 한국여대생들은 매우 선호하지 않는 반면 미국여대생들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흰색치마와 라이트 초록저고리의 배색을 매우 선호하였다.

밝은 회색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양국여대생 모두 선호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양국간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밝은 회색치마와 덜 및 다크 초록저고리의 배색으로 한국여대생 보다 미국여대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두운 회색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한국여대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덜>라이트>비비드>다크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선호하였다. 양국 간에 공통된 선호경향을 보인 배색은 어두운 회색치마와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의 배색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배색을 미국여대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두운 회색치마와 다크 초록저고리의 배색을 미국여대생은 선호하는 반면에 한국여대생은 선호하지 않아 양국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검정치마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초록저고리의 톤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여 라이트>덜>비비드> 다크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양국 간에 차이를 보이는 배색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저고리톤에 상관없이 검정치마와의 배색을 선호하였으며 양국여대생 모두 검정치마와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을 선호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고유의 전통저고리 색으로 알려져 있는 초록저고리와 치마와의 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선호 정도를 분석하였다. 저고리 색은 초록으로 통제하고 치마색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와 무채색(4)을 포함시켜 이들 치마·저고리의 색을 채도는 통제하고 명도만 변화시킨 후 치마·저고리의 톤을 다르게 조합한 112개(1색×4톤×6색×4톤+4색)의 배색에 대한 선호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배색에 대한 한·미 문화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여대생은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를 4가지 톤의 6가지 유채색, 무채색 치마와 조합할 경우 비비드 빨강치마와 다크>덜>비비드>라이트 초록저고리와의 배색 순으로 모두 선호하였다. 특히 비비드 초록저고리와 라이트 빨강치마는 선호하지 않지만 라이트 초록저고리와 비비드 빨강치마는 선호하여 저고리와 치마의 색이 빨강과 초록으로 동일한 배색임에도 치마·저고리의 톤이 반대로 조합 될 때 즉 톤의 상·하 면적변화에 따라 선호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이들 색상과 톤 조합을 면적 변화에 상관없이 모두 선호하지 않는 배색으로 평가 하였다. 초록저고리와 초록치마의 배색을 톤별로 각각 상·하 동일톤으로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모두 선호하지 않는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상·하 톤이 다르게 조합될 경우 즉 톤온톤 배색일 때 양국여대생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대생은 덜 파랑치마와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 다크 파랑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 저고리,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치마와 라이트, 덜톤 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고 미국여대생은 비비드 보라치마와 비비드, 덜, 다크 톤의 초록저고리, 라이트 노랑치마와 라이트 초록저고리, 라이트 파랑, 보라치마와 라이트, 덜, 다

크 초록저고리, 덜톤 파랑, 보라치마와 라이트, 덜, 다크 초록저고리, 다크톤의 파랑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의 배색, 다크 보라치마와 덜, 다크 초록저고리의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흰색치마와 라이트, 덜톤의 초록저고리,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치마와 라이트, 덜, 다크 초록저고리, 검정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초록저고리와의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비드 주황치마와 다크 초록저고리, 라이트 노랑, 초록치마와 비비드 초록저고리, 덜 노랑치마와 비비드 초록저고리의 배색은 한국여대생이 선호하고 치마와 저고리의 배색이 덜 주황과 덜 초록, 라이트 노랑, 초록과 라이트 초록, 비비드 초록과 비비드 초록, 비비드 파랑과 덜 초록, 라이트 파랑과 다크 초록, 덜 파랑과 다크 초록, 다크 파랑과 덜, 초록, 비비드 보라와 비비드, 덜, 다크 초록, 라이트 보라와 비비드, 라이트, 덜 초록, 덜 보라와 덜, 다크 초록, 다크 보라와 다크 초록, 흰색과 비비드, 라이트, 덜 초록, 밝은 회색과 덜, 다크 초록, 어두운 회색과 다크 초록으로 조합될 때는 미국여대생이 선호하여 한국여대생 보다 선호의 폭이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4가지 톤의 초록저고리와 6가지 유채색 및 무채색 치마를 조합한 112개의 배색에 대한 양국여대생의 선호정도를 보면 한국의 경우 22개 미국의 경우 47개로 나타나 색상과 톤이 다양하게 조합된 배색 선호의 범위는 미국여대생이 한국여대생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양국여대생 모두 선호하는 배색은 비비드 빨강치마와 비비드 초록저고리, 비비드 빨강치마와 다크 초록저고리, 덜 초록치마와 라이트, 다크 초록저고리, 덜 파랑치마와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 다크 초록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 밝은 회색치마와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 어두운 회색치마와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 검정치마와 라이트, 덜 초록저고리로 16개 배색에서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명도와 채도가 색채선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 Radeloff의(1991) 견해를 지지해주고 감정이나 판단의 기본차원은 모든 사람에게 널리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이.입증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대체로 미국여대생은 비비드와 비비드, 라이트와 라이트, 덜과 덜, 다크와 다크의 동색배색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여대생은 치마·저고리의 톤차이가 있는 배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문화간에 차이를 보였다. 양국여대생은 초록저고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색상과 톤을 조합한 배색에서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배색이 구분되어 나타났다. 또한 선호 색상의 수는 빨강저고리를 중심으로 한 배색(강경자·최수경, 2005)에서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되는 색상의 성격이 선호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같은 색상의 조합도 톤에 따라 선호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되는 색상과 톤이 선호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미여대생이 선호하는 배색은 각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이지만 초록색 저고리가 어떤 치마색과 배색되고 어떤 톤으로 조합되는가에 따라 선호정도는 문화간에 차이를 보여 각 문화권에서 선호정도가 큰 배색과 작은 배색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 저고리색인 초록저고리와 유채색 및 무채색의 치마를 배색할 경우 문화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한복배색에 대한 동·서양의 선호 경향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한복배색에서도 빨강이나 초록저고리외에 다양한 색상들을 중심으로 배색유형과 면적비, 질감, 평가자의 연령이나 상황 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호도 평가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대상이 여대생으로 한정되어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초록저고리, 한복, 배색, 선호, 톤

참 고 문 헌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1) -톤인톤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2) -톤온톤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443-453.

강경자 (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3) -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962-973.

강경자·최수경 (2005). 한복배색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선호도 연구 -빨강저고리의 톤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631-643.

강혜원·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권민 (1991). 조형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금기숙 (1990). 한국복식미의 탐구. **복식학회지, 14**, 167-184.

김소영 (1989). 성인여성의 한복 색채선호도와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인 · 문영애 (2000). 한국성인 남녀의 의복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964-975.

김진아 (1994). 여자한복의 문양과 배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화중 (1991). 색채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남수진 (1999). 대구 · 전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복색채 감성구조에 관한 연구 - 감성공학적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선희 (1980). 한국여성의 의복색채 기호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이 · 알 · 아이 연구소 (1991). 한국인 색채감성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선재 (1987).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1), 29-42

이은영 (1992). 미래사회의 의류학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의.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발표회, 1-11.

최승희 (1990). 성인여성의 자아실현과 의복디자인 선호도간의 상관관계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옥련 (1998). 색채이론과 활용. 형설출판사, 230-231.

준이찌 노무라 (1994). 색의비밀. 보고사, 144~145.

정삼호 (1989). 성인 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영우 (1997).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최영미 · 조효순 (1989). 한복의 구매행동 및 구매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중심으로. 복식학회지, 13, 135-150.

小林重順 (1965). 升にのための色彩心理. 東京:誠信書房, 92-95.

野村順一 (1966). 商品色彩論. 東京: 千倉書房. 133-134.

Arnheim, 김춘일역 (1981). 미술과 지각. 홍성사, 433-434.

Birren, F. (1955). New Horizons in Color. 165.

Radeloff, D, J(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olor references of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60.

Kobayashi, S(1981).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6*(2), 93-107.

Lind, D. (1993). Psychology of color. Similarities between abstract and clothing color Preferen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1).

Williams. J. Abaugh J. & Rucker M (1980). clothing color Preference of adolescent females, *HERJ., 9*(1), 57-63

Guilford, J.P.(1940). *There is system in color preference JOSA 30,* 455-459.

(2006. 02. 21 접수; 2006. 08. 01 채택)